

## 외부공간과 '역사' 에 대한 배려

### Consideration of exterior and 'history'

차미레 / 세계일보 논설위원  
by Cha Mi-Rae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모든 권력형 밀집도시가 그렇듯 거대한 자본력과 이를 부추기는 도시행정이 말 그대로 '하늘을 할퀴는' 초고층 스카이스크레이퍼(skyscraper)들을 속속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한 도심지나 강남의 기존 아파트단지주변은 '옆으로 더 넓힐 데가 없으니 위로 솟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듯 불과 몇해 사이에 수십층의 주상복합건물과 초고층 오피스텔이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봉건시대 군주들의 궁전과 수성(守城)을 위해 세워졌던 감시탑에서 유래한 '타워'와 '캐슬'의 이름을 달고 민주국가의 수도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기묘한 초고층 첨단 아파트들도 있다.

쉽게 허물고 빨리 짓고 대충대충 마무리 하는 속도전의 전통(?)에다가 갖가지 첨단 공법과 전에 없던 초현대식 중장비기계의 도입으로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공기단축이 최대의 미덕인양 예정보다 빨리 번개처럼 지형과 스카이라인을 바꿔놓는 공공건축들도 많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산도 깎고 샘터도 메우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옛 한옥들도 순식간에 헐어버린다. 조용한 뒷골목도 사라져간다. 주차장설치 의무화가 실시되기 전에 주차장건축비를 안들이고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웬만한 주택가 뒷골목은 파헤쳐진채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이 완공된후 좁은 골목에 수십대씩 차가 몰릴 결과는 뒷전이다. 건축주의 눈앞의 이익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 '타워'와 '캐슬'에 멍드는 서울

80년대 중반에 필자는 건축과 관계된 기획시리즈기사를 전담한 적 있다. 문화부 미술담당기자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던 당시엔 한 경제신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의 건축비 1%를 들여 의무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이 발표됐던 것이다. 대형건물마다 환경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거리의 인상은 그만큼 달라질 것이라는 발상이었겠지만, 미술기자를 오래 한 필자로서는 갑자기 '손님맞이행사'로 도시경관에 법이 개입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상상이 되었기에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매주 연재하기로 하고 건축계의 도움을 청했다. 건물 내부의 타블로(tableau) \_ 액자그림이나 입구, 로비의 소형 조각작품에만 익숙해있는 건축주나 일반시민(관람객)의 인식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신속될 수많은 현대식 초대형 건물자체가 시공단계에서부터 예술적 배려를 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건축미술에 관해서 자료와 의견 등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건축가 김수근선생과의 대화이다.

\_\_ 차기자, 미술전람회 얘기나 써요. 건축 얘기는 써도 소용없어요.

\_\_ 아뇨.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막상 이 '1% 법'이 실시되면 시내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미술작품들이 설치될텐데 잘못되면 돈만 버리고 시각공해가 양산될 수도 있잖아요. 서울의 이미지도 더 망쳐질 수 있구요.

\_\_\_ 어차피 서울이라는 도시전체가 쓰레기통 같은데, 거기에 장미꽃을 꽂든 색칠을 하든 마찬가지 아니요?

\_\_\_ 그렇게 쓰레기통처럼 된 데는 건축가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물들을 설계한 선생님 같은 분들의 책임도 크게 아닌가요? 이 (공간사)건물도 대학로의 미술회관도 선생님은 만족스러워 하시지만, 저는 여기 들어서면 헛갈리고 답답해요. 미술회관도 천정의 과도한 철골구조물 때문에 웬만한 대작이 아니면 전시작품이 죽어보여요. 어쨌든 선생님 책임도 있으니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마음 먹고 생떼를 쓰는 기자에게 그는 많은 외국 서적들과 자료를 빌려주었고 자신의 경험과 건축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 늘 솔직히 이야기 해 주었다. 그 밖에도 여러 훌륭한 건축가들의 열띤 성원과 도움으로 필자는 천호동의 한 대형 신축백화점앞에 세워진 FRP재료의 대형 코끼리상, 예술의 전당 건물이 공모당선작인 김석철씨의 원작에서 동떨어진 전혀 엉뚱한 '갓과 부채 모양'으로 변질된 이유, 대형공연장이 파르테논신전처럼 위압적이고 불편하게 지어지는 원인, 시민의 접근성이 배제된 모든 공공건물과 공용공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설치가 원천적으로 잘 결합된 파리 교외의 신도시 라데팡스 답사기를 비롯해 1년가까이 매주 기사를 연재했다. 시작은 공공미술이었지만, 내용은 도시환경과 건축문제 쪽으로 흘러갔고 수십명의 대학원생(건축과, 환경대학원)들이 논문 자료로 쓰다며 신문기사철을 복사해갔다. 건축이나 도시환경에 관한 신문기사는 물론, 관련서적조차 워낙 희귀했던 터라 이론과 현장을 접속시킨 신문기사는 참고문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 건축의 외부공간과 도시공동체의 융합

그 당시 국내 번역서도 나와있던 일본의 건축가 요시노부 아시하라 (芦原義信)의 (외부공간의 미학) (건축의 외부공간) 같은 저서들은 건축을 화가의 그것처럼 건축가의 개별적인 작품정도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일단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었지만 새롭고 이상적인 도시공동체를 위한 urban design이나 미학적인 계획도시가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게 이상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의 다른 국가 도시들에 비해 우리는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리멸렬하게 '집장사 집' 들이 들어서고 종합적인 도시계획보다는 부분부분 철거와 재개발의 땀질에 의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밀집도시가 돼버린 것이다.

결국 끊임없는 건설과 재건축이 이뤄졌지만 택지와 건물 용적의 극대화, 건축주의 이익과 탐욕에 봉사하는 건축물의 양산으로 건물의 외부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 나아가 주거용 대단지과 도시전체의 외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배려는 시도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50~60년대의 이른바 '미움(口)' 자 한옥들과 목욕탕용 흰 타일을 건물 외벽에 붙인 '양옥집'의 흔재, 70년대의 화강석마감재를 장식한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들, 80년대의 붉은 기와지붕과 전돌의 연립주택과 '빌라' 들, 90년대 이후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풍의 다가구주택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의류처럼 주택문화 역시 그 시대의

패션을 쫓아가기에 급급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물들이다.

#### 역사적 컨텍스트의 실종은 건축가 책임

답답한 것은 종전에 비해 건축물의 용적이나 건축비의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하고 국내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무수한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울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70년대 강남의 대 개발은 뚝섬과 영동의 아름다운 산과 숲을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 없애놓고 시작했다. 그런 광경을 늘 보던 필자는 도시환경에 관한 취재를 하는 동안 서울시 주택연구소를 드나들면서 상계지구의 종합디자인이 종래 있던 야산과 하천지류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도 많이 나아지는구나)하고 크게 감명을 받은 적 있었다. 미셸 라공의 (현대의 페허 도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원도시를 선전하며 도시개발에 앞장 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시멘트포장을 한 다음 화단에 인조잔디나 심는 게 우리 건설회사와 부동산업자들의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녹지는 돈이 되지 않으므로 밀어서 상가를 만드는 편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일정량의 녹지를 보존한다면 전원도시라는 애초의 꿈과 명분을 살릴 수도,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행히 신도시들은 이 점을 어느 정도 배려하게 되었다.

문제는 개별건축물의 클라이언트들과 건축설계자의 인식 수준이다. 옛날 화신백화점 자리에 우뚝 솟은 종로 타워는 대표적인 경우다. 아직은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알묘막한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종로거리, 그것도 인사동과 조계사와 종각을 연결하는 포인트에 노출철골과 유리외 상층부의 거대한 빈 공간이 거의 충격적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33층짜리가 우뚝 솟아나 주변과의 조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건물을 설계한 라파엘 비놀리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화신백화점의 의미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이 외국인이 종로의 종(鍾)의 의미, 전통적인 육의전거리, 종로를 따라 뒷골목으로 이어진 피맛골과 인사동의 체취를 어찌 이해할 것인가.

종로타워의 경우는 '개성적인 디자인' 이 역사를 무시하고 주변과의 컨텍스트를 포기함으로써 '나홀로' 타워가 된 최악의 사례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주들과 건축인들은 파리나 로마, 밀라노같은 도시들이 외관상으로는 오래되고 우중충한 회색도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유행과 디자인의 최첨단도시, 전통과 현대미가 공존하는 도시가 돼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한다. 밀라노 토박이로 건축디자인의 선구자인 지오 폰티의 구호처럼 전후 부흥기에 '순가락에서 도시까지' 탁월한 디자인을 도입했던 사람들이 초고층의 번쩍이는 마천루들을 세우지 않은건 그런 건물을 지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좁은 땅에 내 건물만 하늘 높이 올리고 싶어하는, 역사고 이웃이고 아랑곳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은 역시 건축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먼저하면 다 '운동' 이 되는게 우리나라지만, 건축인들은 그런 점에서 모두 운동가가 되어도 좋다. ㅁ